



하남산단 찾은 강운태 당선자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가 15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남도금형'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10 남아공 월드컵

협력·압박 수비 메시 묶고 역공으로 '골리앗' 잡아라

■ 허정무호 아르헨 공략 비책

허정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은 2010 남아공월드컵 B조 예선 아르헨티나와의 2차전(한국시각 17일 오후 8시30분·사커시티 스타디움)을 앞두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비유했다. 물론 허 감독은 "다윗이 이겼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꼽히는 아르헨티나를 공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허점을 노린다면 태극전사들이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최고의 플레이어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를 비롯 세계적 수준의 개인기를 갖춘 선수들이 즐비한 아르헨티나를 공략할 수 있는 세가지 전략은 무엇일까?

◇협력수비로 메시 잡는다=태극전사들은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결같이 협력수비를 강조해왔다. 이제까지 수많은 팀이 메시를 공략할 수 있는 법을 나름대로 써왔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1대1 수비가 아닌 상황에 따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메시 한 선수만을 봉쇄하기 위해 2~3명의 수비수가 전담 마크할 수도 없다. 메시 외에도 특출난 기량의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메시와 맞붙었던 박지성은 "이전의 결과는 의미가 없다. 대표팀 경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수많은 팀이 메시 봉쇄를 하지 못했다. 또한 메시 한 선수만 막을 수도 없다. 얼마나 수비 조직력으로 경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반대 축구학과 경기분석팀은 메시에 대해 전담 수비를 따르듯 말고 지역방어를 펼쳐며 유기적이고 순간적인 협력 압박 플레이를 하라고 조언했다.

이과인·테베스·디 마리아 등 막강한 공격수가 많은 아르헨티나를 맞아 메시의 전담 수비를 둘 경우 예초부터 수비수 1명이 부족한 입장에서 경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 경기 흐름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대인방어보다는 4-4-2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한 지역방어를 쓰되,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의 간격을 2~3m로 촘촘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정무 감독은 나이지리아와 1차전을 치른 아르헨티나의 전술을 분석하면서 "메시는 후반 중앙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평가했다. 오른쪽 측면과 중앙으로 옮기는 메시의 동선은 왼쪽 측면과 중앙이 주무대인 박지성과 딱 부딪힌다. 결국 메시 봉쇄의 해법은 박지성을 중심으로 한 미드필더들의 협력 압박에 일차적으로 달려 있다.

◇마라도나를 흔들 심리전도 필요하다=마라도나는 감독으로 이번 월드컵이 첫 무대다. 남미 특유의 다혈질을 갖고 있는 마라도나는 그간 즉흥적인 언행으



로 술한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만큼 자체력도 약하다는 얘기다.

허정무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가 마라도나를 초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라도나의 자전대로 경기가 진행되지 못하면 초조한 마음에 즉흥적인 전술이 나와 팀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점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낙승을 자신하는 아르헨티나는 만일 무득점의 시간이 계속 되면 전술적으로 다급해질 공간이 크다. 한국에게는 역습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결국 세계최강의 공격력을 보유한 아르헨티나의 파상공세를 얼마나 버티면서 0-0의 행진을 오래 지속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태극전사들의 강철 체력도 큰 무기=허정무 감독은 아르헨티나가 나이지리아전에서 후반에 더 힘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강한 체력을 보유한 한국에게는 이로운 점이다. 남아공에 입성한 뒤 고지대-저지대-고지대를 오가고 있지만 체력적인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그리스와의 1차전에서도 후반에 그리스 선수들의 급격한 체력 저하가 눈에 띄었지만, 한국선수들은 피곤함을 모를 정도였다.

90분 동안 지칠 줄 모르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태극전사의 체력은 '골리앗'의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업무·기능 중복 기관 퇴출 1순위

■ 광주시 공기업 등 구조조정 이렇게

경영성과 철저히 따져 책임 물어야 전문성 높이고 투명경영 대안 시급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들이 경영실적과 업무 행태에 따라 통폐합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기관들의 경우 경영실적 부진·업무 중복·전문성 미흡·상호 연계기능 부족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기관들이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광주시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철저한 조직점검을 기반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책임 물어야=기업·기관 22곳 중 2000년 이후 설립된 곳은 공기업이 3곳, 출자기관 1곳, 출연기관 8곳 등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기관들이 시민 요구나 공공서비스 수요 등에 의해 설립됐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영실적자료를 제출한 16곳 중 8곳, 즉 50%가 적자를 보고 있으며, 광주시가 이들 기업·기관에 2억원~300억원 이상까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도 만성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기관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과 투명한 공채과정 등도 전제조건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크게 늘었으나 수효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을 얹기 위해 만들어놓은 듯한 인상이 강하다"며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들 기업·기관들의 경영실적과 업무성과 평가에 대해 그동안 소홀했다"고 말했다. ◇업무중복·기능연계 미흡 개선해야=올해 민선 4기 막바지에 설립된 공연예술재단과 전략산업진흥원은 업무중복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공연예술재단은 설립 취지와 기능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유사하다. 전략산업진흥원은 같은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 산하 전략산업기획단과 그 명칭부터 기능까지 동일하다. 애초 광주시는 전략산업기획단의 확대개편 방식으로 전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했으나 내부 반발 등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이들 출연기관에 각각 100억원과 200억원을 향후 10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기관명	기관장	주요 경력	대표자 2009년 연봉 (업무추진비 제외)
▶공기업			
도시공사	김영진	광주시 건설국장	8000만원(성과금 1600만원)
도시철도공사	오영원	광주시 문화정책실장	7500만원(1200만원)
환경시설공단	김응모	광주시 도시교통국장	7100만원(1400만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의수	코트라 런던무역관장	8300만원(1300만원)
▶출자기관			
광역정보센터	김영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4800만원
한국CES	김효수	기업인	8750만원
수원에너지	김홍권	기업인	1억1400만원
▶출연기관			
발전연구원	채일병	국회의원	9338만2000원
디자인센터	윤광호	광주시 환경복지국장	7400만원
과학기술교육협력센터	김권필	기업인	5000만원
테크노파크	남현일	광주은행 부행장	9500만원
신용보증재단	김재욱	광운비즈니스 대표이사	9000만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상길	언론인	7500만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오건택	예술인	5500만원
영여방송국	김원욱	언론인	비공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이현일	광주시 경제정책보좌관	비공개
남도학숙	조병수	기업인	무보수명예직
5·18기념재단	윤광장	5·18단체 대표	비공개
비엔날레	이용우 부이사장	예술인	비공개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춘봉 부이사장	광주시의회위원장	7400만원
전략산업진흥원	조영동	광주대교수	미결정
공연예술재단	김포천	언론인	미결정

동안 출연하며, 운영비로 2억원 이상을 지원, 매년 수십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될 전망이다. 기존 공기업·출연기관 중에서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과학기술교육센터·테크노파크·중소기업지원센터, 디자인센터와 광주비엔날레, 도시공사와 환경시설공단 등도 일부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 기업·기관들의 연계기능도 취약해 시너지효과를 올리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복수수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과 기업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그만큼 경영이 어려운 것"이라며 "만성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은 공공서비스의 수요예측을 잘못했거나 그 기능과 역할에 비해 과도한 인원을 채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제주도 가 더 가까워집니다.



초 쾌속 오션저항 취항
중흥 노력함 - 제주 성신함
편안 쾌속항 (7시간 40분 소요)

7월 2일

7.16 - 8.22

- **새롭힌 제주관광** 1박2일 **129,000-**
- **달콤한 제주관광** 2박3일 **169,000-**
- **시원한 제주골드** 1박2일 **279,000-**
- **내맘대로 자유여행** 2박3일 **199,000-**

*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jeju.go.kr) 또는 제주여행사 문의